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친근한 혁명전우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세 호위전사, 항일의 로투사인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항일성전에 참가한 그날로부터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리을설원수동지는 그 명도자였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실장의 고통을 멈추고 애써하게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를 잃은 슬픔을 감할수 없으며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의 생애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육천적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온 고귀한 한생이었으며 수령보위의 제1선초소에서 백육같은 충정을 바쳐온 총대투사의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식민지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에서 헤매이던 리을설동지는 1937년 여름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풀갈한 소년혁명가들을 키워내실 숭고한 뜻을 안시고 소년총대를 조직하여주시였으며 리을설동지를 비롯한 소년총대원들을 전부모도 불수 있는 위대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시였었습니다.

간고한 행군길에서 험한 장애물이 나서면 몸소 업어 건너지주시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한몸으로 감싸안아 보호해주신 친어머니사랑,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가가거거를 배워주시고 때로는 엄한 꾸중도 하시며 혁명의 철리를 심어주시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어 리을설동지는 혁명적수행관을 체질화한 열혈투사로, 높은 군사적자질과 능숙한 정치공작방법을 소유한 항일명장으로 지라날수 있었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사령부 전령병으로서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경각성으로 호위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는 기관총을 들고 적들속에 뛰어들어 무비의 용맹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사령부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부대활동의 나날에도 동지는 무전수로서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결사판결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전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전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전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분쇄하며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결탁한 미제의 악랄한 폭격으로 최고사령부 가까이 떨어진 시한탄을 죽음의 각오하고 목도도 날라 제거한 결사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혁명역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리을설동지의 영웅적인 위훈담들은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인민군 변함부대, 대원함부대의 책임직인 위치에서 사임하던 나날에도 리을설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융위하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신을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백두산시절과 다름없는 한 모습, 한 본색이었습니다.

수령앞에서 항상 솔직하고 고지식한 자세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여온 리을설동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들려주시었습니다.

리을설은 일찌기 부모의 슬하를 떠나 한생을 자신의 길에서 살아오면서 무장으로 당을 보위해왔다고, 지나거나 자기수행만을 생각하고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진짜배기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값높은 평가는 동지가 항일의 로투사로 당의정화사업에 영웅적한생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한 고귀한 활력소로 되었습니다.

백두산일명시절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받아들여올리며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온 리을설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인민군데안에 유일적명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리을설동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위하는 군부대와 호위부대의 책임임군으로 내정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심장에 새기고 군인들을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전사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한 수령결사옹위투사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명도하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리을설사령관은 인생의 유년기도, 인생의 청춘기도, 인생의 로년에도 당과 수령에게 충직해온 혁명선배이라고, 수령님과 자신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모두 풀어준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원수칭호를 안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본인도 알지 못한 병상대를 헤아려보시고 다 른 나라에 보내어 수술을 받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떠날 때에는 물론 돌아올 때에도 몸소 비행장에 나가서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혁명을 더 오래 하자면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동지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고 최고사령부의 중요직무를 맡겨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리을설원수동지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근 20년간 군복을 벗지 않고 당을 받드는 길에서 총대전사의 한 생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전사가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

렸으며 오늘은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서 원수동지의 건강과 생활,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고 다 풀어주시였으며 원수동지가 올린 소박한 편지들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함으로 리을설원수동지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온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고 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최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때에 리을설원수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을설원수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원수동지가 받들어온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원이 되시어 장의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동지의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명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렬의 충정을 다하시어



어은 원수동지에 대하여 값높은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가 받아안은 김일성총장과 김정일총장, 공화국2중영웅칭호와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원수동지가 올린 소박한 편지들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함으로 리을설원수동지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온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고 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최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때에 리을설원수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을설원수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원수동지가 받들어온 수령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원이 되시어 장의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동지의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명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렬의 충정을 다하시어